



**‘메리 크리스마스’** 영천시가 생명의 상징과 희망을 기원하는 각종 조명 물결로 넘치고 있다. 시는 시청오거리를 중심으로 도동네거리와 서문옥거리, 망정네거리 등 시가지 주요 관문도로 3곳 가로수에 조명을 설치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조명등을 이용해 ‘엄마, 아빠 사랑’과 ‘어보 고마워’ 감성 메시지로 불을 밝혀 평소 소홀했던 가족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고 있다. 박삼진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위법판결

## 대구·경북 중소상인 반발 기류 확산

### 대법원 확정시 의무휴업 사라져 전통시장 몰락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제도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로 그동안 지자체마다 조례에 의해 시행해온 지역상권 보호 차원의 의무휴업일이 유명무실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들의 매주 2차례 의무휴업이 사라지면서 주말 영업과 24시간 영업도 가능하게 돼 지역 중소상인들과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옛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

무휴업 일을 지정할 수 있는 처분 대상인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대규모 점포와 그곳에 입점한 임대매장은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이라며 이런 제한은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개정조례에 따른 영업제한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처음으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이 사라질뿐 아니라 대구·경북 등 지역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자치단체들은 대형마트들의 진출확대로 지역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지역상권 보호차원에서 의무휴업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휴업제도가 위법이라는 고법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될 시 지역중소상인들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경북에서도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통시장연합회, 중소상인연합회들은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위법판결은 가혹이나 힘든 전통시장을 몰락시키고 어려운 상인들을 길거리로 내몰 수 있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그동안 지자체들이 상권보호와 지역 상생차원에서 의무휴업을 전제해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해왔지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사라질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인 현행 법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사용승인 보류 등 아

이 이경우 입점 규제에 대한 행정소송과 법적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한 상인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전통시장과 지역 중소상인들의 타격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대형마트의 매주 2차례 의무휴업은 많은 논란 끝에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 같은 조치가 부정된다면 “상생의 길은 무너지고 더 큰 사회적 반발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잘못”임을 강변했다.

한 공무원도 법의 기초는 사회적 상생과 합의가 큰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상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의무휴업일 제도는 지켜지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영철 기자

26일 금요일 신문 쉽니다

## 道, 中 요우커 유치 만리장성 프로젝트 가동 특화 상품 개발·청소년 ‘Edu-tour’ 활성화

경북도가 중국 관광객 잡기에 나섰다. 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의 지역 유치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담은 ‘만리장성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1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만리장성 프로젝트’ 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한 것에 이어 중국 관광객 유치정책의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될 계획도 수립함으로써 본격적인 중국 관광객 유치활동에 돌입했다.

중국 관광시장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팽창을 거듭해, 2013년 해외관광객 9,819만명, 관광소비액 1,286억달러로 세계 최대 관광시장으로 성장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2013년 433만명의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해 일본 관광객을 제치고 국내 최대 관광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올해는 600만명 이상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3일 확정된 경북도의 ‘4대 추진전략과 25개 중점 추진과제’ 중 ‘만리장성 프로젝트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요우커가 만족하는 창조형 경북관광’ 구현을 목표로 중국 관광객 특화 창조 관광상품 개발, 중국 청소년 ‘Edu-tour’ 활성화 등 5개 과제 추진을 통해 경북관광을 다양화·고부가치화해 중국인의 관광수요 창출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내집같이 안전하고 편리한 경북관광’ 실현을 위해 中文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구축, 중국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쇼핑·오락 등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 등 7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함으로써 관광지로서의 경북의 매력도를 제고하고 재방문을 유도한다.

또한, ‘요우커와 소통하는 경북관광 3.0’을 위해 Weibo, Baidu 등 중국 현지 소셜미디어 홍보, 한류 영상콘텐츠를 통한 PPL 마케팅, 중국 관광마케팅 원정대 운영 등 5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해 경북의 지역 인지도 향상 및 경북관광을 브랜드화 한다는 계획이다.

## 경북대 총장 선출, 뜨거운 감자로 부상

### 교육부 임용거부 재선정 후보

직선제 폐지 이후 처음 실시된 경북대 총장 선출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대는 1990년 김익동 총장 이후 24년 만에 직선제를 폐지하고 합입식 전 경북대 총장 임기가 지난 8월 31일 만료돼 공석 상태인 새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지난 6월 선거를 치러 최종 후보로 1위 김사열(58·생명과학부), 2위 김동현(55·수학과) 교수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직선제보다 더 많은 폐해가 드러난 선거며 추첨으로 뽑은 추천위원들에 대한 총장 후보들의 로비도 심각하다는 등 각종 잡음이 쏟아졌지만 직선제를 폐지하고 치르는 첫 선거라는 의미에서 논란은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추천위 구성에 규정보다 1명 많은 공대교수 4명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0월 추천위 전원을 새로 추첨해 재선거를 치러 다시 김사열 교수와 김상동 교수를 각각 1순위와 2순위

후보자로 선출해 교육부에 제청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지난 16일 “추천한 총장 후보자 2명에 대한 임용을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후보자를 재선정할 것을 통보해 경북대 새총장 선출이 진통을 겪고있다.

그러자 경북대 출신 변호사들이 교육부가 해당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호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장은 비롯한 경북대 출신 변호사 45명은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경북대학교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이어 교육부의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는 대학총장 선거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후보자를 재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비판과 지성의 전당으로서 학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대학에 일방적인 명령에 순종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한민국 창조경제 선도도시!  
대구의 미래, 수성알파시티가 먼저 시작합니다

수성알파시티  
SUSEONGALPHACITY

SW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본 궤도 진입!  
SW융합기술지원센터 부지 공급, ICT융합벤처센터 건립 확정!  
대구 신성장동력, 글로벌 창조경제의 중심이 될 수성알파시티!  
마지막 본격적인 비전이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www.daegu.go.kr | DGFEZ www.dgfez.go.kr | 대구도시공사 www.dgcity.go.kr

# 道, 내년 하수도사업 '순항'

### 예산 3,980억원 확보, 환경기초시설 확충

경북도는 2015년도에 경북지역의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121개지구 에 3,980억원을 투입해 환경기초시설 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도는 공공수역의 수질 및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하수처리 장 확충에 16개소 763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3개소에 1,098억 원, 면단위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35개소 에 503억 원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사업 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

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 는 지역에 대한 하수도 시설을 개선하 는 도시침수 대응사업 2개소 234억 원 도 적극 추진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 할 방침이다.

또한 하천으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 를 감량해 환경오염저감과, 버려지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해 농업용 수로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223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상수원 상류지역의 음식점 등

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처리, 노후 된 분뇨 처리시설의 현대화로 맑고 깨끗한 수환경 보전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에 21억원(5개소)을 지원함으로써 공공하 수도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다고 밝혔다.

권오승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2015년도 하수도분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한 집행이 잘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하천수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팔 기자



경북도청 소속 7급 이하 젊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창조경북 주니어 포럼'이 23일 군위 백송스파서비스에서 열렸다.

# 경북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 '앞장'

###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경북도는 지난 19일 문경관광호텔에서 도 및 시·군의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갖고 올해 주요사업 성과 및 2015년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도는 지난 19일 문경관광호텔에 서 도 및 시·군의 식품위생 담당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을 갖고 올해 주요사업 성과 및 2015년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 해 동안 좋은 식단 실천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결과 우수한 실적 을 거둔 시·군에 대한 시상과 함께 2014 년 식품정책사업 성과 및 2015년 추진 방향 설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 론, 특강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는 안전한 외 식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점 위생개선

교육·홍보, 건강한 식단 실천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나눔의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좋은 식단제 이행, 특 화거리 재정비 실적 등에 대해 중점적 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대상은 포항 시가, 최우수 영주시, 청도군이, 우 수는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철곡군

이 각각 영예를 안았다.

이경호 도 식품의약과장은 "식품위 생담당 공무원은 일선 현장에서 도민 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먹거리 문 화 정착에 앞으로도 노력해 달라"고 당 부했다.

이종팔 기자

# "젊음의 특권 도전력 바탕으로 창의 행정 추진"

### '창조경북 주니어 포럼' 열려 분과별 연구활동 강평·시상식

경북도청 소속 7급 이하 젊은 공무원 들로 구성된 '창조경북 주니어 포럼'이 23일 군위 백송스파서비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올 한해 분과위별로 연 구해온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에 이어 차세대 리더로서 가져야 할 리더십 특강, 2014년 주니어포럼 활 동사항에 대한 자체점검, 내년 2015년 주니어포럼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 순 으로 진행됐으며, 각 분과별 연구활동 에 대한 강평과 시상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놀러와(문화관광) 분과에서는 1인 가구, 나홀로족 증가에 따른 흐름에 맞

춰 기존 관광상품을 재조명한 '나홀로 감성여행 맞춤형상품' 개발 제안과 주니어잡스(일자리) 분과에서는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경북형 '씨앗 문화인 육성 프로젝트'를, 주니어힐링(보건복지) 분과에서는 직원들의 잦은 야근과 격무, 경직된 조직문화의 문제 점을 지적하고 점심시간 탄력운영제, 몸장 클럽, 사내놀이터, 연차사용 장려 캠페인 등을 제안했으며, 육해공(농수산) 분과에서는 낙동강 수질개선 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환경개선 운동 으로 주민 공동체를 통한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사업 시작부터 실행까지 구체적으로 완성도 있게 제안 했다.

또, BM(건설도시) 분과에서는 스마 트그리드 국가계획에 맞추어 ICT융합

에너지효율 최적화를 위해 전력 재판 매(AM) 서비스 등 '경상북도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으며, 스마트행정(기획) 분과에서는 신도청 이전에 따른 효율적인 사무환경 배치 와 도민의 신청사 접근에 대한 용이성 및 친밀감 제고를 위한 청사배치 구성 에 대한 다양한 창의적인 제안으로 관 심을 받았다.

우병윤 정무실장은 "미래 경북도를 이끌어갈 차세대 공무원들로서 도정발 전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젊음의 특권 인 도전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행정 을 추진해 줄 것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긍정적·적극적인 자세로 더 나은 미래 경북을 위한 꿈을 쉼프마킹으로 이루 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팔 기자

# 道,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 경북새일지원본부 성과보고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원장 김윤순) 경북새일지원본부(본부장 박은미)가 경북테크노파크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14 경북새일지원본부 성과보고회" 를 개최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새일지원 본부가 주관하는 "2014 경북새일지원 본부 성과보고회"는 경상북도 및 시군

여성일자리 관계자와 여성친화기업· 여성 근로자,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 터 취업설계사 및 직업상담사, 교육생 10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사업성과 보고를 통해 한 해를 돌아보 고 향후 새일 사업 방향 등을 모색했 다.

이날 경북새일지원본부 성과보고회 는 올 한해 도내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 여한 바가 큰 우수 수행기관 구미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경산여성새로일하기 센터, 포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표 창이 수여됐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김윤순 원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는 향후 경북새일지 원본부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 임과 동시에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다"며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일가정 양립 일 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기업체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 성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종팔 기자

# 경북도, 정부 3.0 추진성과 공유대회

### 구미 '최우수', 경주·김천 '우수'

경북도는 23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에서 이인선 경제부지사, 허동찬 김천 부시장, 시·군 정부3.0관계자 및 서포 터즈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경상북도 정부3.0 추진성과 공유 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2014년도 정부3.0 추진 실적 우수 시·군 및 정부3.0 서포터즈 활동 유공자 표창, 한 해 동안의 정부3. 0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2015년

정부3.0 추진방향에 대한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2014년도 정부3.0 추진실적 우수 시·군 시상에는 최우수상 구미시, 우수상 김천시·경주시, 장려상 문경 시·고령군 등 5개 시·군이 수상했으 며, 경북도 정부3.0 서포터즈 활동 유 공자로 영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변수 민씨를 비롯한 5명이 도지사 표창을 수 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구미시는 정부3. 0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미-김천-칠곡 버스 광역 환승시스 템 구축', '범죄 OUT! 재난 OUT! 입체 적 도시안전망 구축', '찾아가는 민·관 협업 주거복지 서비스' 등을 적극 추진 해 타 시·군의 모범이 됐다.

이인선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시·군 정부3.0 관계자 및 서포터즈의 그동안 노고와 활동에 대해 감사드린다. 앞 으로도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등 다양 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 다.

이종팔 기자

군위에서 역사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 민족역사 1번지

삼국유사 가온누리에서 삼국시대들,  
민간사 일면소님을 통하여 고려시대들,  
역사재현 공원에서 조선시대 체험을,  
화본마을 '엄마마마 어렸을적'에서 근·현대들 ...

## 군위

Where the history of Korea has begun.

# 道, 주민 삶의 질·행복 증진에 매진

## 생활권발전협의회 열어 선도사업 과제 검토

경북도는 23일 대구 인터블고엑스코 호텔에서 '제4차 경상북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열어 생활권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15년도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제출 예정인 선도사업 과제 검토를 가졌다.

이날 도 균형발전사업단의 이희열

단장의 2014년도 경상북도 생활권사업 추진상황 및 2015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11개 생활권에서 제출한 선도사업 13건에 대한 자료보완을 위한 검토의 시간이 진행됐다.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

업'은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을 형성한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으로써, 생활권 주민의 삶의 질 및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민 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복지 증진, 주민불편 해소 및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5대 중점분야인 기피시설 해소, 낙후지역 교육 및 의료질 개선, 주민안전, 일

자리창출, 생활인프라를 지원한다.

올해 경북도는 '2014년도 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6개 사업이 선정, 국비 141억원을 확보했으며, 또한, 지난달 선정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서도 전국 최다인 110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2014~2015년간 확보된 국비는 862억 원이다.

이종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갖바위 선본사가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을 23일 경북도에 기탁했다.

## '훈훈한 사회만들기에 함께 동참'

대한불교조계종 갖바위 선본사, 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 기탁

대한불교조계종 갖바위 선본사가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을 23일 경북도에 기탁했다.

팔공산 갖바위 선본사는 이날 경북도청 도지사 집견실에서 성본 주지스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 성금 1,000만 원을 김관용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성본 주지스님은 "불자들이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온정을 보태고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이번

성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배려하고 작은 것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선본사가 기탁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북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들의 긴급 생계비, 의료비, 돌봄기 연탄·난방비 등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이종팔 기자

## 경북도의회의장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세요"

### 2015년 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23일 도의회 의장집견실에서 홍진규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보영 경북적십자사 지사회장에서 2015년도 적십자사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적십자회비는 재난 이재민 및 저소득층 등 소외된 이웃의 복지증진 등 독거노인, 아동 청소년 가정, 취약계층, 무료급식 등 인도적 사업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종팔 기자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23일 도의회 의장집견실에서 홍진규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보영 경북적십자사 지사회장에서 2015년도 적십자사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 김경도 의원, 안동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 발의

### 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166회 안동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 10건 중 2건을 의원 발의했다.

'안동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경도 의원, '안동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대일, 이상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동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보면,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안동시 시세조례 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연동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도 이에 맞게 손질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법 개정이 바로 조례 개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즉시행정에 적용이 가능해 졌다.

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김경도 의원

김대일 의원

주요 개정골자는 첫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까지 감면한다는 조항 신설이다.

둘째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 관리수탁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50%에서 80%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하고 부설주차

장 설치기준을 세대 당 0.7대에서 1대로 0.3대 상향토록 했다.

반면에 학생용기숙사는 현행 시설면적 300㎡당 1대의 부설주차장 확보에서 시설면적 400㎡당 1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는 내년도 1월중 공포되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윤재철 기자

### 평화통일운동 촉진·의식고취 기여

### 성주군의회 이성재 의장 '대통령상'

성주군의회 이성재 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수여하는 2014년 의장(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성재 의장은 평통 성주군협의회 자문위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 공헌 했으며, 그동안 통일외교 결집을 위한 여론을 주도해 통일외교 고취에 힘을 쏟아 평화통일운동 촉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이 의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평통 성주군협의회 통일사업 추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 KT 올레 봉화지사, 영주지사로 이전 통합

### 봉화대리점 업무 대행 실시

KT안동지사장(이흥기) 및 영주지점장(정진태)은 지난 18일 봉화군 의회를 방문해 KT봉화지사가 KT영주지사로 이전 통합된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흥기 KT안동지사장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KT올레(olleh) 봉화대리점에 직원 1~2명을 추가로 인력 보강해 기존 봉화지사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안동지사장과 영주지점장의 이번 봉화군 의회 방문은 지난 10일 열린 봉화군의회의(의장 황재현) 제194회 정례회에서 황재현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KT봉화지사 재개원을 KT(대표이사 황창규)에 만장일치로 촉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봉화군의회의에 발 빠른 대응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켰으며, 주민의 대기기간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류효환 기자

### 영주 새해 예산 5천억원 확정

### 사회복지분야 1천억원 편성

영주시는 내년도 예산을 5,31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12억원으로 편성했다.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예상 등 불확실한 세입여건에 따라 가용재원은 다소 감소

하였지만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내실 있는 사업들로 계획했다.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분야가 1,262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분야 69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58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3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35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류효환 기자

## 社 告

### 경상투데이와 함께 하십시오

불편부담의 자제와 언제나 울퉁불퉁한 소리로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건전한 여론을 대변하는 정론지로서의 책임속에 '희망'을 배달하는 '경상투데이'와 함께 할 패기있는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작은 일에도 귀 기울이고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시도민들의 맘 냄새가 진하게 풍겨 나오는 이야기로 지역발전 및 선도적 역할에 앞장설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 ■ 지방담당 기자 모집분야

경상투데이 본사	취재·편집 분야	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대 이상 남(병력필 및 면제자)여 각 1명
대구취재본부	대구 일부 지역	
동부취재본부	영양·울릉·울진	
중부취재본부	구미·김천·상주	
남부취재본부	청도	
북부취재본부	영주·예천	

#### ■ 지원 일시

- 2014년 12월 8일~12월 30일까지 접수 (접수 마감 당일 오후 6시까지) 및 본사 메일 접수

#### ■ 지원 서류·발표

- 사진 첨부한 이력서, A4용지 반 장분의 자기소개서, 반명함판 사진 2매 (접수된 지원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사 발표 : 본사 인사위원회 입사 결정 심사 후 전화 통보

#### ■ 지원 장소·문의

경북 경주시 원화로 244번지 (황오동) 및 본사 총무국 (054) 748-0070, 입사지원 메일 : gst3000@naver.com 및 이력서 지참 내방

경상투데이



# 문경, 구제역·조류독감 차단방역 '만전'



문경시는 시민운동장 주차장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축산관계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24시간 소독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거점소독시설 설치 24시간 운영

문경시는 충북 진천에 이어 청주, 증평, 음성 등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과 함께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의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거점 소독시설을 문경시민운동장 주차장(문경시 점교길 15)에 설치하고 축산관계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24시간 소독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거점소독시설은 외부지역에서 방문하거나 다른 지역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려는 차량 및 운전자는 반드시 거점소독장소에 진입해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문경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소독약품 3,225ℓ 및 생석회 50톤(2,500포/20kg), 휴대용 소독약품 400병을 배부함과 동시에 공동방제단을 이용해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와 축산관련시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독활동도 전개했다.

특히, 돼지사육 전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또한 'AI·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 자가예찰 및 소독을 독려하는 SMS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구제역 예방접종 전담요원을 지정하는 등 긴급 방역태세에 돌입 차단방역에 돌입했다.

김세현 기자



예천경찰서(서장 박달서) 형사팀이 지난 19일 환경재단(대표 최열)이 주최한 제10회 '2014년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에 선정돼 수상했다

## 예천署 형사팀, 농산물 절도범 검거 '2014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선정

예천경찰서(서장 박달서) 형사팀이 지난 19일 환경재단(대표 최열)이 주최한 제10회 '2014년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에 선정돼 수상했다

예천경찰서 형사팀은 지난 8월 28일 심야시간 대표차량을 이용해 경북 북부지역(예천, 안동, 영주, 문경 등) 농가에 침입, 53회에 걸쳐 5,158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기업형 농산물 절도범 2명 구속해 피해 농민들을 위로한 공적이 인정돼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 선정은 제10회 환경재단(대표 최열)에서 지난 2005년부터 시민의 추천을 받아 한 해 동안 우리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헌신, 도전과 열정, 웃음과 감동을 통해 어둡고 그늘진 곳을 따뜻하고 환하게 밝혀준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왔다.

대표 수상자로는 전국노래자랑 사회자 송해씨와 정글의 법적 방송인 김병만, 야구선수 류현진, 흥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등 428개 개인 및 단체에 수상해 왔다.

올해는 김성근 한화이글스 야구 감독과 김부선 배우, 사회적 기업 '그루', 예천서 형사팀 등 다양한 분야의 18개 팀 및 개인이 선정됐으며 예천경찰서는 형사팀장 등 2명이 지난 19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 홀에 참석해 수상했다.

윤재철 기자

# 경주중앙로타리, 헌병대와 참봉사 실천문화 확산 총력

## 육군50사단 헌병대와 자매결연

경주중앙로타리클럽(회장 황병욱)과 육군 제50사단 헌병대는 지난 21일 칠곡 헌병대에서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헌병대장 및 간부 10여명과 경주중앙로타리클럽의 황병욱 회장, 박문상 직전회장, 이상의 역대회장, 서상호 클럽트레이너, 권오석 차기회장 등 분과위원장 20여명이 참석해 협정서를 교환했다.

양 단체는 이날 자매결연을 통해 신세대장병들의 병영생활과 명예·솔선·봉사라는 헌병훈과 함께 병영내에서도 솔선 봉사하는 병과로 거듭 나고 지역 사회 발전과 참 봉사 실천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지원 함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황병욱 회장은 "로타리클럽의 2014-



경주중앙로타리클럽(회장 황병욱)과 육군 제50사단 헌병대는 지난 21일 칠곡 헌병대에서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2015년도 테마인 '빛내자 로타리'를 실천하기 위해 로타리안 중에서 입영대상자를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병영체

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군인의 사회인으로 문제를 상담해주는 사업을 두 단체 간의 협의 하였고 재능기부를 통

한 의료 및 직업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영주소방서-청량산도립공원, 산악사고 합동구조 MOU

영주소방서(서장 김대진)는 23일 11시 2층 소회의실에서 청량산 도립공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산악사고 및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력 지원과 조난자 및 고립자 인명구조를 위한 합동구조체계 구축, 재난사고 발생 시

유기적인 협조 체계의 향상을 위한 정보교류 및 교육·훈련 활동지원 등 두 기관이 상호협력키로 했다.

김대진 영주소방서장은 "양 기관이

업무지원 및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일원화된 긴급구조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청량산도립공원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류효환 기자

# 영천소방서, 시민들의 안전한 연말 지킨다

## 안전확보 특별경계근무 돌입

영천소방서(서장 이재욱)는 시민들의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위하여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소방공무원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영천소방서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등 562명과 장비 30대가 총 동원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전직원 비상대비 근무태세를 강화하고 화재취약대상 24시간 감시를 위한 취약대상

순찰 및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터미널과 역 등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응급환자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119구급차를 근접 배치해 긴급 대응태세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재욱 영천소방서장은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기하겠다"며 "전 직원들에게 성탄절에 이은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삼진 기자

Cheong Song

아삭~아삭~아삭!!  
맛있는 사과를 소리부터 다룹니다!

사과의 명품 -  
**청송사과**

청송의 청정자연이 키워  
더 맛있는 청송사과!  
아삭~ 아삭 시원 달콤!!  
육질만 단단하고 풍부한  
사과하면 단연 명품 청송사과입니다.

**청 송 군**

명품 청송사과 구입문의 1577-7997

# 최고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경주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간담회 개최

경주시(경제진흥과)는 22일 신라직업전문학교에서 201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간담회를 고용노동부(포항지청)를 비롯한 지역맞춤형일자리 유관기관(12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주시의 2014년 일자리성과와 민선6기 일자리방향에 대한 설명과 사업수행기관의 올해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 자체 평가를 하고 2015년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맞

춤형일자리 공모사업에 대한 내실을 가지고 취업뿐 만 아니라 창업을 지원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에 의견을 모으고 다짐하는 자리였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90%)와 경주시(10%)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개 기관(사)경북마이스관광진흥원, 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재)동양직업전문학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

단이 참여하여 5개 사업, 290명에 대한 인력양성 특화사업을 수행했다.

한편 경주시(최양식 시장)는 민선 6기 일자리 공시제를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고용률 70.8%와 145천명의 취업자를 2018년까지 공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직접일자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민선6기 공약사항, 일자리 인프라구축, 우량기업

유치, 일학습병행 기업 발굴 등 9대 전략을 수립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희동 일자리담당은 "우리 지역 수요가 최대한 반영 된 지역 맞춤형일자리 발굴과 수행에 민간에서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 하고, 경주시의 최고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인 만큼 모두가 협심하여 추진하자"고 했다.

이인호기자



23일 원자력해체연구센터 경주유치위원회는 경주유치 대정부 건의문과 함께 김관용 도지사와 경주시민 22만여 명의 경주건립 촉구 서명지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전달했다.

## 원자력해체센터 경주가 최적지!

22만 시민 서명지·건의문

중앙부처·국회 등 전달

23일 원자력해체연구센터 경주유치위원회(이하 원해연)는 경주유치 대정부 건의문과 함께 김관용 도지사와 경주시민 22만여 명의 경주건립 촉구 서명지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

이날 경주시장을 비롯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경주시의회 의장, 경주시 이통장연합회, 청년연합회 등 각 시민단체가 동참했으며, 경북도지사도 도를 대표, 유치찬성에 서명하며 힘을 보탤다.

경북도는 2011년부터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경북 동해안권을 세계적인 원자력 산업메카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원해연 경주 유치는 국내 원전의 48%, 원전 해체 우선 대상인 월성 1호기와 노

후 원전을 최다 보유, 2030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원전 12기 중 6기가 위치해 있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2012년부터 원전소재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에 경북은 현재 포스텍 로봇융합연구소, 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스코, 한전 KPS,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등 관련 산·학·연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해체대상인 경·중수로 원전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차세대 원자력연구 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확장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원전의 설계(한국전력기술), 운영(한수원), 처분(방폐장)과 처분관리기관(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있고 앞으로 원전 수리·정비기관(한전 KPS)까지 갖추게 되어, 향후 원해연이 유치될 경우 원전 전 주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인호·이종필기자

#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담배 'NO'

경주시 보건소, 금연캠페인 실시  
성인 대상 무료 금연보조제 지급

경주시 보건소는 지난 20일 황성동 5일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금연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합동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인 음식점 100㎡ 영업장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연구역을 홍보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 커피전문점)의 경우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5년 1월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



경주시 보건소는 지난 20일 황성동 5일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금연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합동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면 금연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 보건소는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꾸준한 흡연자 관리와 PC방

음식점등 공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금연 모니터링을 통하여 금연환경조성에 노력을 한다.

금연클리닉실은 주민건강지원센터

(현곡소제)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금연보조제 지급과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이인호기자

## 경주 우수봉사자 13명 표창 수여

2014 평생학습문화센터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경주시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2014년 여성자원활동센터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을 22일 평생학습문화센터 큰어울마당에서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평소 헌신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하여 온 경주시 우수자원봉사자 13명에 대한 시상

식을 가져 표창장을 수여 했다.

미래지향적인 여성자원활동자를 육성하기 위한 이날 교육은 '자원봉사자와 자아실현'이라는 주제로 자원봉사자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에 대해서 숙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991년에 설치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12개팀 340명의 여성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무의탁노인 무료급식

봉사, 목욕봉사, 독거노인들의 밀반찬 배달,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생일케익 배달과 일일어머니활동, 주요기관 민원인 안내도우미, 결혼이주여성들의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이주여성 도우미 활동 등 지역 사회 구석구석 사랑으로 틈새를 메꾸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인호기자

## 뜨끈한 라면 한그릇에 사랑 듬뿍 담아

안강한우작목회, 이웃에 라면 전달

안강한우작목회(회장 공진관)은 22일 점점 더 추워지는 날씨에 관내 74개 소 경로당(등록 63개소, 미등록11개소)에 라면 200박스(460만원), 쌀10포(20kg)를 전달하여 지역 어르신에 대한 공경 및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안강한우작목회는 회원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수한 품질의 한우 출하 및 직접 사육한 한우를 판매하는 등 한우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매년 라면, 국수 등을 경로당과 어려운 이웃

을 위해 봉사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단체이다.

공진관 회장은 "올 겨울이 예년보다 더욱 춥다고 하는데 조그마한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기탁의 뜻을 밝혔다.

이진섭 안강읍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안강한우작목회원의 아름다운 마음이 지역주민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인호기자

고향상품 직거래로 좋은제품 믿고사시오

<http://www.andongjang.com>

# 사이버안동장터로 오세요.

안동장터

사이버 안동장터 인터넷 주소 : <http://andongjang.com>  
문의전화 : 080-501-0501, 054-853-5088 팩스 : 054-841-5377

안동장터 AndongJangter

사이버 안동장터는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특산물을 산지가로 직거래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안동시에서 운영합니다.

# 포항시, 국비확보에 광폭행보 ‘눈길’

## 국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주요시책 20건 발굴

포항시가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6년 국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갖고 국비확보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김재홍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국비확보 현황과 2016년 국비확보 여건 및 전망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보고에 이어 신규시책을 발굴한 해당부서장들이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신규시책 대상사업으로는 슈퍼이차전지 R&BD 창조생태기반 구축(5,000억원)과 바이오·금속 3D프린팅 지원센터 구축, 철강 비엔날레 테마공원 조성(1,000억원), 동해 해맞이 sun로드 조성(400억원) 등 예타 대상사업을 포함해 19건의 신성장동력 사업과 시민행복 시책들이 쏟아졌다.

특히 '바이오·금속 3D프린팅 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경우, 3D프린팅 금속소재 분야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연구수행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3D프린팅 바이오분야 또한 포스텍에서 세계적 기술 경쟁력과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지역내 첨단 과학인프라의 활용을 통한 핵심부품 소재의 국산화가 가능해 부가가치 상승은 물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천혜절경 호미반도권을 연계한 새로운 해양탐방로 조성사업인 '동해해맞이 sun로드'의 경우 경북 권역별 미래전략 과제 및 동해안권 10대 핵심프로젝트에도 포함된 사업으로 '호미

꽃'을 전국의 해맞이 명소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의 공조를 통해 국비확보에 매진할 계획이다.

김재홍 부시장은 "2015년은 현 정부 3년차로 국정과제 본격 추진과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기반을 다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창의적 시책 발굴이 필요한 시기"라며 "시민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해양탐방로 조성사업인 '동해해맞이 sun로드'의 경우 경북 권역별 미래전략 과제 및 동해안권 10대 핵심프로젝트에도 포함된 사업으로 '호미

차동욱 기자

## 경산 삼성현中, 탈북학생 적응교육 '최고'

###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영예

삼성현중학교(교장 송용준) 장재정 교사는 지난 16일 제5회 전국 탈북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 'BASE CAMP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탈북 학생들의 행복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품하여 중등 개인부문 우수상과 한국교육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

본교에 재학 중인 3명의 탈북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우리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학교 실정과 탈북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면서 '탈북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과 기초학력 신장을 통하여 꿈을 이뤄가는 행복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3단계별로 탈북학생 개인의 능력과 꿈을 키워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1단계는 개인 맞춤형 상담으로 탈북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우고, 2단계는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즐겁고 당당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도했으며, 3단계는 기초학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신의 꿈과 미래를 열어가도록 지도했다.

탈북학생들은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인호 기자

## 영천행복마을 “따뜻했던 1년간의 추억 떠올려요”

### 스타빌리지사업 평가회 개최

울 한해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오지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영천건설을 위해 밤 흘린 영천시 자원봉사단체에서 실시한 '영천행복마을 스타빌리지' 사업 평가회가 열렸다.

영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최완우)는 23일 SD웨딩컨벤션 2층에서 '영천행복마을 스타빌리지 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는 32개 단체 자원봉사자 80여명이 참석해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며 그 동안 영천행복마을 스타빌리지 사업에 직접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대해 격려하고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해 더 나은 2015년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행사는 스타빌리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보고를 시작으로 2월에 실시한 1호마을(고경면 부리), 4월에 실시한 2호마을(교촌동), 10월에 실시한 3호마을(북안면 유상리) 활동을 영상



에 담아 뜻 깊었던 현장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영천행복마을 스타빌리지사업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

했으며 그간 봉사활동에 대한 소감을 교환했다.

이번 영천행복마을 스타빌리지사업은 전문성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자원봉사단체들의 재능나눔을 통해 복지사

박삼진 기자

## 영천시, FTA기금사업 내실화 다진다

### 과수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영천시가 과수 농가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FTA 기금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자두를 지원품목에 새로 추가하고 GAP사업을 도입하는 등 변화되는 새로운 농정에 대비하고 있다.

시는 지원품목에 자두를 추가하기 위해 사업 참여 희망업체를 선정해 사업체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영천시에 따르면 FTA 기금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10년간 343억9천8백만원을 투입했으며 그 결과 지역 과수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주요성과로 포도 간이비기림시설 확

충과 키낮은사과 확대, 복숭아 우산식 지주사업 도입 등 구조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개선할 점은 포도시설 이랑의 좁은 간격과 생산량 위주의 농법, 신기술 도입 태만 등으로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농업인과 행정의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영천 과수산업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혁신을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희망 참여업체 신청 공고는 영천시청과 영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년도 1월 5일까지 실시한다.

박삼진 기자

## 포항시, 호미꽃 해맞이 행사 '만반 준비'

포항시가 지난 22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제17회 호미꽃 한민족해맞이축전' 행사와 관련해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가졌다.

이날은 포항시, 남·북부소방서, 포항해양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다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의형 회의

가 이뤄졌다.

이번 호미꽃 해맞이 행사는 창조도시 기반마련, KTX 개통 등 홍보의 장으로 계획됐으며 시민들의 영상메시지, 소원풍선 띄우기, 뮤직불꽃쇼, 1만

명 떡국 나눠주기 등 다양한 행사가 운영될 예정이다.

포항시 이영희 안전정책과장은 "올미년 양미 해를 맞아 해맞이축전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행복한 추억을 안고 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상욱 기자

### 포항시, 친절·청결마인드 함양

### 숙박·음식점 서비스향상 간담회

포항시가 23일 시청 건강위생과 회의실에서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숙박·음식점주와 숙박·음식점 위생관련단체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의 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참석한 숙박업주들은 부당·과다요금 근절과 친절·청결·질서의 자율적 실천을 다짐하고 식품접객업주들은 영업장 및 주방청결과 남은음식 재사용안하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손상욱 기자

Together GyeongSan

기업하기 좋은 경상북도 첨단산업도시

일자리가 많은 활력 넘치는 경제, 미래의 꿈이 자라는 일등교육 조상의 얼이 깃든 찬란한 문화, 행복이 넘치는 건강도시 경산시가 21세기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힘차게 도약합니다.

경산시

# 보육사각지대, 공보육 서비스 제공한다

## 철곡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공모사업 참가 '생명숲어린이집 건립사업' 최종 선정 '쾌거'

철곡군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15 생명숲어린이집 건립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어린이집 건립사업' 공모가 발표되자, 철곡군은

2012년 지천면 소재의 민간 어린이집이 폐업하면서 보육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로 공모에 응해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천면 신리 214번지 일대에 201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친환경 지천 생명숲 어린이집 조성에 들어갔다. 사업방식은 철곡군이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재단에서 건축디자인 설계 및 건립을 시행한 후 군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건축규모와 보육정원 등은 추후 재단과 협의해 결정된다. 백선기 군수는 "어린이집이 전무한 지천면에 가장 우선적으로 어린이집 건립 추진에 노력해 왔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수준 높은 친환경 공보육 서

비스를 제공해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농촌, 귀촌한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실현하기 위해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18개 보험회사 공동으로 창립 이후 생명존중과 생명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오고 있다. 전상철 기자



성주군새마을회는 지난 22일 오후 6시 성주웨딩에서 새마을남여지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성주군새마을지도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성주군, 새마을 지도자 대회 개최

### 유공자 표창·장학금 전달

성주군새마을회(회장 유문성)은 지난 22일 오후 6시 성주웨딩에서 새마을남여지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성주군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새마을운동을 계승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며 봉사해 온 성주군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김향군 성주군수를 비롯한 정영길 경북도농수산위원장, 이수경 도

의원, 백철현 부의장과 군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대회는 새마을홍보물 상영을 시작으로 최광열 수문면협의회장의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 전수 및 지도자 표창, 우수 읍·면 협의회·부녀회·문교단체상, 장학금 전달, 새마을운동 실천다짐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올해 성주군은 새마을분야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우수상, 성주군 새마을회는 최우수 단체상을 받는 영예를 얻어 군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김경희 기자

# "성주 가야산에서 해맞이로 소원 빌어보세요"

## 새해 맛이 다양한 행사 후원

올미년 새해 첫날 한해의 소망과 행복을 기원하는 '성주 가야산 해맞이' 행사가 1월 1일 오전 7시 수문면 백운리 소재 가야산국립공원 내 군민화합공원에서 성주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된다. 해맞이 행사에 앞서 보조행사장에서는 성주지역 봉사단체에서 2015인분의 복떡국과 갱시기, 어묵, 떡, 차, 해맞이떡을 준비해 해맞이 관람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또 소원지 쓰기과 달기체험, 벽위며 나눔 행사를 통해 추운날씨에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체험과 성주군민들의 따뜻한 인심을 느끼게 할 예정이다.



올미년 새해 첫날 한해의 소망과 행복을 기원하는 '성주 가야산 해맞이' 행사가 1월 1일 오전 7시 수문면 백운리 소재 가야산국립공원 내 군민화합공원에서 성주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된다.

를 구축했다. 성주소방서는 응급환자에 대비해 구급차 및 화재대응에 필요한 화재진압 차량, 성주군보건소에서는 골든타임 내 응급조치를 위해 공중보건의 구급

차량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시용 성주문화원장은 "2015 성주 가야산 해맞이 행사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준비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가야산 일출을 보며 새

해 희망과 소망을 가슴 가득히 담아가시고 올미년 청양의 성스러운 기운을 받아 새로운 한해를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 철곡, 건축·주택행정 최고도시 자리매김

### 3년 연속 도내 최우수 '영예'

철곡군은 '2014 건축·주택행정 종합평가'에서 건축·주택분야 3년 연속 최우수 및 옥외광고물 분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북도내 주택·건축 및 옥외광고물 분야 최고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군은 살기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군비 2억을 보조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구성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 및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다. 전상철 기자

이처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과 주민들이 한뜻으로 건축·주택분야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뤘다. 또한 올해 왜관을 석전리 일원 주변 상가 103업소의 가로형 및 돌출형 간판 144개를 특색있는 맞춤형 간판으로 디자인해 환경개선 및 선진광고 문화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옥외광고물 분야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경희 기자

## 의성, 생태·환경위주 경제 가치 높은 산림 육성

### 도 산림행정 평가장려상 받아

의성군이 경북도에서 실시한 2014년도 산림행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평가에서 장려로 선정됐다. 의성군은 2014년 산림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저탄소 녹색성

장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해 조림사업 118ha와 숲가꾸기사업 1,570ha를 적기에 완료하여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했다. 또 산불방지 기간 중 전 군민과 공무원이 합심 노력해 다방면으로 철저한 감시 및 홍보활동을 한 결과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은 '산불 없는 맑고 푸른 의성 만들기'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매년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의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미발생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신태호 기자

또한, 낙동강과 숲길과 마을길 연결을 통한 생태관광 결합 및 지역 유명산인 만경산 주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등산객들의 안전과 편의 제공 등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방자연휴양림의 휴양편의시설 정비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매년 이용률이 10%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신태호 기자

## 경북도 자원봉사 평가

### 성주군 우수상 수상

성주군은 2014년도 4분기 자원봉사 경북도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자원봉사 평가는 2014년도 4분기동안 추진한 자원봉사 전반에 대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4개항목의 평가지표를 통

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다. 군은 매월 두번의 이·미용서비스, 장수사전형영, 수지침 등 찾아가는 재능나눔 봉사를 비롯해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자원봉사 모범학교의 장애인세 대 집중소,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초전면 문덕리에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희 기자

www.saejaemall.com

# 자연이 숨쉬는 건강식량 청정 문경에서 채우세요

## 자연을 채워 정성으로 키워낸 문경 특산물!

- 백두대간의 맑은 기운이 서려있는 문경 오미자**  
백두대간 산지락에서 자생하는 오미자를 옮겨와 해발 300m 이상의 청정환경과 높은 일교차와 산간지대에서 친환경 재배기술로 생산합니다.
- 맛과 건강을 업그레이드시킨 문경 약들한우**  
물모희생선이 풍부하여 육질이 연하고 육즙도 넉넉한 약들한우-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원목재배로 맛과 향이 뛰어난 문경 표고**  
천혜의 문경 산신 참나무 권목에서 자란 문경 표고-깨끗한 자연에서 키워 철저한 품질관리를 더 할 수 있습니다.
-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문경 사과**  
충만한 일조량, 주야간의 큰 일교차로 더 맛있는 문경 사과-농약을 줄인 친환경 농법으로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 약들 사료를 먹여 더 건강한 문경 약들돼지**  
우리 밭에 이로운 불로화재방산과 딸수 아이노신이 함유된 약들돼지-꿀맛을 갖춘 육질, 신맛한 입맛과 더불어 돼지 특유의 냄새가 없습니다.

문경시청 T.054-552-3210, F.054-550-8309 | 친환경농업과 T.054-550-6880 | 유통축산과 T.054-550-6270 | 새재장터 T.054-552-7500, F.054-554-9670

문경시 새재장터 www.saejaemall.com

# 예천군, 교통오지 농어촌버스 첫 운행

### 배후마을 대상 면 소재지 환승거점까지 중형버스 활용 금남 등 8개 행정리 하루 2회 운행 주민 교통불편 해소

예천군이 교통 불편지역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농촌형 교통서비스 사업으로 용궁면 교통오지 지역에 농어촌 버스를 23일 첫 운행에 들어갔다. 이번 첫 운행을 시작한 농촌형 교통 서비스 제공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희망재단이 주관해 실시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 사업을 위해 농어촌희망재단으로부터 2년간 1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을 예정이며 마을 진입로가 협소해 버스 운행이 어려운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면소재지의 버스환승거점까지 25인승 중형버스를 활용해 순환 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용궁면 교통 취약지역인

금남, 무이, 향석, 월오, 덕계, 송암 지역 8개 행정리를 하루 2회 운행해 연인원 3만 명의 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버스 운행노선은 2개 노선으로 면소재지-금남-무이-향석-무지-면소재지 노선과, 면소재지-월오1-덕계-송암-면소재지 노선으로 특히, 향석2리와 무이1, 2리 주민은 버스를 타기 위해 2km 이상을 걸어 나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운행으로 주민의 이동권 보장으로 교통 불편이 다소 해소되었다. 윤재철 기자

이날 향석2리, 무이1, 2리 마을 주민들은 첫 운행을 기념하며 운행버스 기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기뻐했으며 버스를 타고 용궁면으로 이동해 불일을 보고 마을로 돌아오는 행사를 가졌다. 이 군수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용궁면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희망택시 사업 및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등 군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철 기자



문경지역자활센터는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약 두 달간 '한국에너지재단' 등에 공모해 8천여 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지역 저소득층 130여 가구에 창호와 보일러를 교체했다.

##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외부공모사업 시행으로 지역복지 발전 기여 저소득층 130여 가구에 창호·보일러 교체

**문경지역자활센터**  
문경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석동)는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약 두 달간 '한국에너지재단' 등에 공모해 8천여 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지역 저소득층 130여 가구에 창호와 보일러를 교체 주고 소외계층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노력해 지역복지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국에너지 재단에 공모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오래 되고 낡은 나무문 등을 하이샷시 창호로 교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3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지역의 저소득층 91가구의 창호를 교체해 주었다. 또한 다솜복지재단에 공모한 '농어촌 어르신 보금자리 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난방시설 문제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난방기 등(연탄보

일러, 기름보일러)를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활센터는 3천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의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21가구에 보일러와 난방설비 교체 공사를 시행했다. 뿐만 아니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전 '여민회' 등에 공모해 '농어촌 집고쳐주기 사업 4가구와 모자가정의 여성근로자 건강권 지원 2명, 전기세·수도세 등 공과금미 체납된 주민에게 '행복주식거래소 긴급지원' 1명, 저소득층 생필품 지원 등 약 2천만 원의 금액을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했다. 자활센터 이현덕 실장은 "저소득층 주민으로 구성된 자활센터의 집수리사업단이 또 다른 지역의 저소득 주민들을 도와주는 이른바 '저저 케어'라 할 수 있어 의미가 있고, 지자체가 아닌 외부에서 공사비를 지원받아 한 사업이라 더욱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는 23일 올해 사업을 평가하고 밝아오는 신년의 새로운 활동의욕을 다짐하는 사업실적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 2014년 사업실적평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는 23일 올해 사업을 평가하고 밝아오는 신년의 새로운 활동의욕을 다짐하는 사업 실적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관·단체장 및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의 수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봉화군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해 온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승훈 지회장은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국민안보의식 고취와 사회안정

구축활동이 바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밝혀줄 원동력이 되고 있다. 회원 한명 한명이 모두 안보의 주체이고 보루이다. 안보의식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확산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효환 기자

**북부제1교도소, 출소예정자 7명 사회복귀 위한 취업 채용약정**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김안식)는 지난 22일구직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30명을 대상으로 수용자교육실에서

"2014년 제6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 출소예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지역우수 중소기업인 (주)일우 등 4개업체가 참여해 1대1 현장면접을 실시해 7명의 채용약정을 이루어 냈

다.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안동고용센터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취업 및 사회복귀지원에 필요한 실질적인 상담을 실시해 출소예정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조영국 기자

**안동교육청 Wee센터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지역 희망 중·고등학생 대상**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현) Wee센터(센터장 박창환)는 지난 8월 3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중·고등학생 중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Wee센터와 함께 하는 그루터기 멘토링'이라는 주제로 지역의 대학생이 멘토가 되어 멘티인 청소년과 1:1로 연계해 심리정서 및 문화체험 그리고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청소년기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에 잘 적응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 멘토링에 참가한 대학생은 "처음에는 멘토링 된 청소년이 수동적인 태도를 가져 활동하는데 힘들었지만 연락이 이어지고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고민거리나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친밀감을 형성g 마치 친동생처럼 다가왔다. 또한 벌써 평가회를 하고 종료를 할 생각을 하니 아쉬운 마음과 더 잘해 주지 못한 미안함이 든다"라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안동교육지원청 박 Wee센터장은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상담이 종결된 이후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재철 기자

## 영주시, 교통안전 이상 '無'

### 영일교차로 내 교통사고 방지대책 조정 회의

영주시는 23일 오전 11시 시청 제2회의실에서 영일교차로 내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 권익위원회 고충 처리국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조정회의에서는 차량통행이 많은 영일교차로의 교차로 내 차량속도 저감시설 설치 여부가 쟁점 사항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영주시 관계자는 "영일 교차로의 근

본적인 해결 방법은 중앙선(도담-영천간 복선 전철화 사업) 복선화 사업으로 고가교량이 설치되면 신호등 설치가 가능하여 교통 흐름이 원활하겠지만 우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안한 물리적인 속도저감시설인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해 차량속도를 강제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류효환 기자

www.bonghwa.go.kr **대민을 여는 녹여도시 성장동력**

# 대한민국 대표 산리휴양도시 봉화

청정 봉화와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자연 농특산물을 맛보세요!  
산이 많아 나무가 많고, 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봉화! 원예의 천수와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수려한 산세와 맑고 깨끗한 계곡이 태고의 빛과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화군은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더욱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화군**





기말고사를 치기 위해 19일 대구보건대학교를 찾은 승무원 3인방이 회사 유니폼을 착용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하니, 최지애, 경희지 씨)

### “꿈꾸던 항공승무원 됐어요”

대구보건대 의료전산과 3명, 지상직 승무원 취업

대구보건대학교(총장 남성희) 보건 의료전산과 재학생 3명이 항공사 지상직 승무원으로 나란히 취업해 화제다. 주인공은 서하니(20), 최지애(20), 경희지(20)씨다. 서 씨와 최 씨는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에 취업해 나란히 제주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경 씨는 대한항공에 합격해 원주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 11월 말부터 2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최근 현장에 배치된 이들은 학과의 취업교육이 승무원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서비스, 병원코디네이터, 전산교육 등 NCS기반 학과정규과목이외에 40시간 동안 예절, 스피치 등 지상직 승무원에 적합한 특별 취업교육을 받았다. 이 학과는 2학기 동안 재학생의 취업 목표에 따라 일대일 맞춤형으로 취업교육을 펼쳤다. 어렸을 때부터 승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경희지 씨는 “원주공항은 작아서 수속, 보딩, 탑승까지 하는데 고객들을 대하고 항공기가 이륙 할 때마다 즐겁다”라고 말했다.

이종팔 기자

### 국토교통부, 첨단산단 중복 지정 원안 가결

의료연구기업 투자유치 촉진 기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어 혁신도시 내 산학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14만9,239㎡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하는 개발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구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지 중복 지정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구와 충북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을 올해 3월 신청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생명과학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대구 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그동안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산학융합사업 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초 혁신도시 내 산학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을 대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을 올해 3월 신청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이종환 기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대회 개최

대구 달성군자원봉사센터(소장 진수일)는 22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김문오 달성군수를 비롯한 이종진 국회의원, 체명지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조성제, 최재훈 시의원, 각 사회단체장 및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달성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달성문화원 통기타 동아리를 비롯한 4개 팀의 식전공연과 2014년 한해 동안 활발히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동영상 상영,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유공자 표창, 자원봉사자들의 화합 한마당 행사로 펼쳐졌다.

가운데 ‘2014년 달성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달성문화원 통기타 동아리를 비롯한 4개 팀의 식전공연과 2014년 한해 동안 활발히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동영상 상영,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유공자 표창, 자원봉사자들의 화합 한마당 행사로 펼쳐졌다.

이종팔 기자

## 대구, 우수 인력 선발 역량평가제 도입

기피·민원부서 근무자 우대, 기술·소수직렬의 승진기회 확대

대구는 지난 9월부터 준비해 온 새로운 인사제도를 확정하고 차기 인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를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격무·기피부서 및 고질·민원부서 근무자를 우대하며 기술·소수직렬의 승진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4급 이상은 실적과 능력 중심의 발탁인사를 유지하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시 성과와 역량 중심의 신조직 문화를 견인할 우수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역량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역량평가제는 실제 업무와 유사한 정책수행과 설득·협상, 민원해결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내년에 공무원교육원에 역량평가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17년에 시행하며 이는 종전의 정실인사에 대한 불만과 반발 해소는 물론, 직원 개개인의 역량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역량평가와 더불어 성과창출이 탁월하거나 조직내부 신망이 두터운 직원에 대해 승진인원의 10~20% 정도를 승진 단계수 범위 밖에서 발탁할 수 있도록 해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인사정의 실현과

활기차고 일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전보제도는 기존 승진을 위한 자리 선점 차원의 연공서열형 전보를 탈피해 소통과 경쟁 개념의 전보제도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요 핵심사업에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위해 인사부서에서 개인의 역량을 파악해 전보하는 기획인사와 맞춤형 희망인사를 시행하고, 격무·기피, 고질민원 부서 장기근무자와 성과평가결과 우수자에 대한 부서선택권 부여와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상호 전보도 가능한 확행한다. 또한, 개인별 업무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상시기록관리시스템을 도

입하고, 기술·소수직렬에게 승진·보직기회를 주고 사기양양을 위해 상위직급(4-5급)을 복수직렬로 개방·확대하며 행정·기술직렬 직위도 상호 전보하여 타 직렬 간 소통 및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인사제도 개선 계획에는 그동안 시와 구·군 간의 교류가 없어 구·군과 소통이 단절되고 행정서비스 격차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어 시와 구·군 직원 상호 파견 교류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규정(규칙)을 정비해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여성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희망부서 및 주요부서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종환 기자

### 대구시, 결혼이주여성 취업 문 연다

대구한의대-고용노동청-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 개설·취업 시스템 구축

대구는 대구한의대학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 개설을 통한 취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체결을 24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한다. 시는 2015년도부터 대구한의대학교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없이 입학할 수 있는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를 개설해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 취업

까지 연계하는 취업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는 학사과정으로 모집 인원은 매년 20명으로 교과목은 사회에서 수요가 많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목과 졸업 후 결혼이주여성의 장점을 살려 이중 언어강사를 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과목으로 구성된다.

입학대상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자녀이며, 대학교 등록금은 대구시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수업은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상 주중에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오프라인 수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토요일에 개설되는 오프라인 수업과 사이버강좌로 개설될 예정이며, 졸업 후에는 대구시

방고용노동청과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에서 관련 분야에 취업을 적극 알선할 예정이다.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 원서접수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구·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15일 면접을 실시해 1월 20일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꿈을 가지고 한국에 온 이주여성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주여성들의 브랜드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환 기자

### 제4회 디지스트 가족의 밤 행사 열어

올해의 디지스트인 상 3명 수여

디지스트(DGIST, 총장 신성철)는 22일 열린 ‘제4회 디지스트 가족의 밤’ 행사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기관 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성과를 이뤘던 3명을 선정해 ‘올해의 디지스트인 상’을 수여했다. 올해의 디지스트인 상 수상자로는 대학원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은용순 교수와 에너지연구부 우성호 책임연구원, 기획처 한주탁 기획·홍보실장 등 총 3명이다. 디지스트 신성철 총장은 “올 한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디지스트인 상을

수상한 3명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수상자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기관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기에 창립 10주년이 된 디지스트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의 디지스트인 상’은 2011년부터 제정해 시상하고 있는 상으로서 한 해 동안 교육, 연구, 행정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뤘던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상금 100만원과 표창패가 주어지며 ‘디지스트 Honor Plaza’에 핸드 프린팅해 설치된다.

이종팔 기자



디지스트는 22일 열린 ‘제4회 디지스트 가족의 밤’ 행사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기관 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성과를 이뤘던 3명을 선정해 ‘올해의 디지스트인 상’을 수여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새로운 농협이 언제나 당신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의 가치 NH 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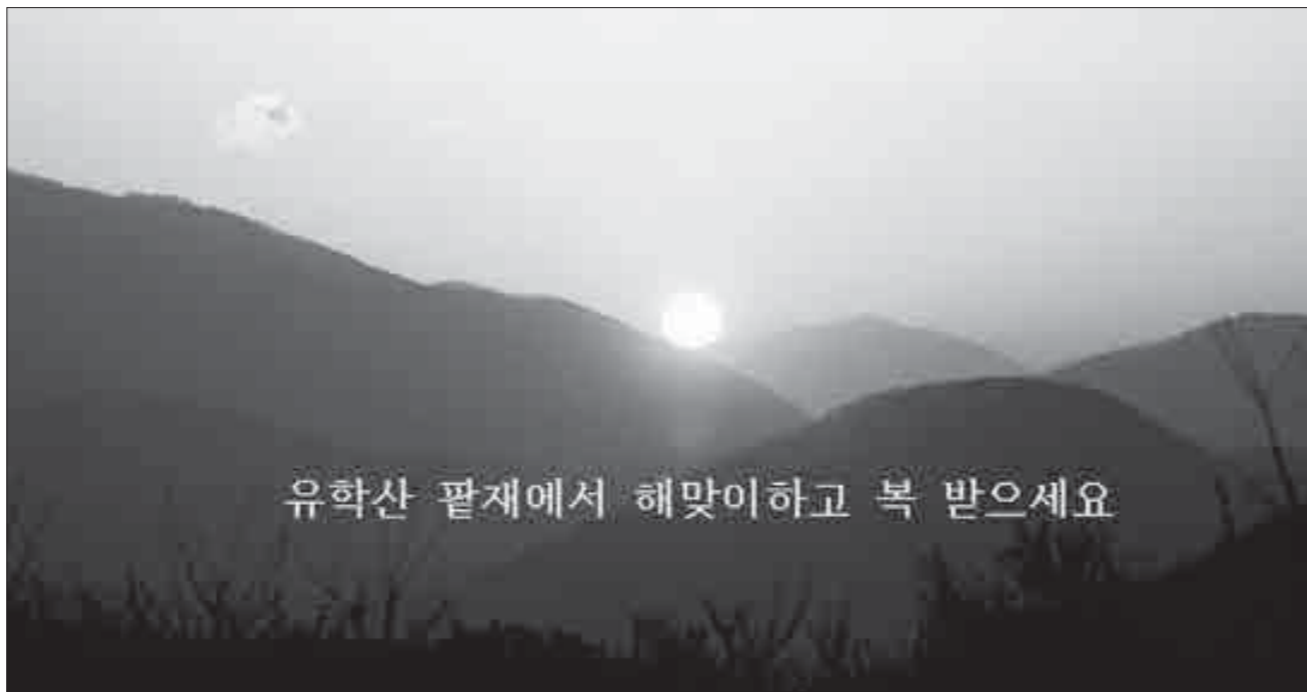
# 칠곡군, 유학산 팔재서 해맞이 행사

### 강우강설로 등산로 곳곳 결빙, 안전사고 우려...山정상 '유학정' 행사는 취소

칠곡군은 2015년 새해를 맞아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건설의 결의를 다지고 군민의 안녕과 소망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유학산 팔재에서 개최한다.

작년까지는 유학산 정상인 유학정에서 행사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12월 들어 잦은 강우강설로 등산로 곳곳 결빙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돼 노약자와 장애인 등 각계각층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팔재에서 개최하게 됐다.

칠곡군 해맞이 행사는 1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지역단체장과 일반인 등의 '신년축하인사 영상 상영'에 이어 희망찬 새해를 여는 풍물패 길놀이공연, 군민 안녕 기원제, 백선기 칠곡군수의 신년메세지 전달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민족통일협의회(회장 김종영), 의용소방대(대장 조기석, 최옥수), 청년협의회 연합회(회장 이상승)에서 따뜻한 차와 어묵을 제공하며, 한



유학산 팔재에서 해맞이하고 복 받으세요

국자유총연맹(지회장 정시문)에서는 참석자에게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유학산 팔재는 팔공산, 가산을 비롯

한 지역의 일출명소 중 한곳으로 온 가족이 참여해 힘차게 한해를 시작하는 행사가 될 것이다. 중앙고속도로 다부1C에서 5분, 왜관

등 근내 전 지역에서 20분 이내에 행사장을 찾을 수 있어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 유학산의 일출은 7시 37분이다. 전상철 기자

## 달성군,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우수봉사자 표창 수여·노고 격려

대구 달성군자원봉사센터(소장 진수일)는 22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김문오 달성군수를 비롯한 이종진 국회의원, 체명지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조성제, 최재훈 시의원, 각 사회단체장 및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달성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달성문화원 통기타 동아리를 비롯한 4개 팀의 식전공연과 2014년 한해 동안 활발히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동영상 상영,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유공자 표창, 자원봉사자들의 화합 한마당 행사로 펼쳐졌다.

특히, 유공자 표창에서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우수자원봉사자를 비롯해 협력업체 및

봉사단체 등 41명에게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군수표창 등을 수여했다.

김문오 군수는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숨은 곳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전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통해 희망과 사랑을 나누며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필기자

## 고령군 '세계유산 대가야 고분군' 탐방 대구지역 태권도관장·사범 40여명 초빙 팸투어

고령군은 체험 및 숙박형 관광객 유치에 대구지역 태권도관장 및 사범 40여명을 초청해 팸투어 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의 주요 일정은 대가야 박물관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을 탐방했다. 또한 체험학습 장소로 안성맞춤인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를

둘러 본 후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농기구전시관 관람과 함께 대가야체험캠핑장에서 체험 활동도 병행했다.

이날 팸투어에 참가한 태권도 관장들은 "고령에 이렇게 많은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줄 몰랐다"며, "특히 대가야 왕릉전시관이 이색적이라는 평가와 바비큐체험의 상품성을 높이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본 행사를 통해서 숙박



과 체험을 연계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유발하고 고령군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 태권도 관장 팸투어 2차 행사는 오는 28일에 대구지역 태권도 관장 및 사범 45명이 참여해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희기자



## 경북공무원노조, 나눔문화 슬선수범 '홀몸어르신·장애인 40가구' 겨울나기 물품 전달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도영호)은 23일 청도지역 홀몸어르신·장애우 가구 등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과 내의를 선물하는 '사랑의 겨울나기 물품 전달' 행사를 가졌다.

경북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임원 및 대의원 등 30여 명은 오후 2시부터 청도읍 10가구에 '사랑의 연탄' 2,000장을 배달하고 수급자 등 35명에게 내의를 선물했다.

임원 및 조합원들은 청도군 청도읍 등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과 장애우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도록 덕

담을 나뉘었으며, 조를 나눠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 예산 일부를 지원받아 경북도청 노동조합 임원 및 대의원이 기탁한 성금과 노동조합 운영비를 절약한 예산으로 진행했다.

도영호 위원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사랑의 겨울나기 물품' 전달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자발적인 나눔과 봉사마인드를 제고하고, 공익실현을 통한 봉사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필기자

## 예천군보건소, 저출산극복사업 경북 '최우수' 기관 표창

예천군보건소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펼친 결과 경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2014년 저 출산 극복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3일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경북도 저 출산 극복사업 평가대회에 참석해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을 뿐 아니라 우수사례도 발표하면서 사례를 타 시군으로 전파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는 저 출산 극복 관련사업 추진,도 시책사업,저 출산 극복을 위한 기관장 관심도 및 우수사례 등 총 4개 분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군에 따르면 특히 올해 정부 3.0시대 구현에 맞춘 역점사업으로 음악과 함께 하는 공감과 소통, 부부 공감 음악교

실, 각양각색 장기자랑 등 감성프로젝트 운영이 독창성을 띤 아이디어로 참여도를 높일 뿐 아니라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예천교회와 예천권병원과 연계해 운영한 '행복한 임신부학교'는 예비 엄마들의 임신과 건강한 출산, 육아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심하게 낳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저 출산 극복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저 출산 극복은 공공기관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지역기업 및 단체 등이 협력해 주민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철기자



# 대가야 역사·문화, 제주서 널리 알린다

### 대가야·국립제주박물관, '대가야의 탐라 나들이' 특별전 잠재 등록된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조속 기원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김성명)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기획특별전 '대가야의 탐라 나들이'가 22일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전시는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대가야 유물을 제주에 처음 소개하는 자리로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지산동 고분군의 조속한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시도에서 기획됐다.

고령군(高靈郡)은 경상북도 서남쪽에 위치한 '산 높고 물 맑은' 살기 좋은 고장으로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 우리나라 고대사의 한 축을 이루었던 대가야(大加耶)의 옛 도읍지였다.

고령읍을 둘러싸고 있는 주산의 능선 위에 있는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의 성장과 발전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유적으로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제주도의 옛 탐라 왕국은 가야를 비롯한 삼국과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해양과 내륙문화를 융합했다.

현재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관광지이며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주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 출토 대가야 유물을 소개하는 공동기획특별전 '대가야의 탐라 나들이'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전시는 도입부를 포함해 3부로 이뤄진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대가야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어 제2부에서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소위 '대가야 양식' 혹은 '고령 양식'으로 불리는 토기, 무기, 말갖춤, 장신구, 가야금 등이 전시된다. 아울러, 제주도에서 출토되는 내륙계 유물도 함께 소개했다.

제3부는 대가야 고분의 부장 당시 모습을 재현해 관람객들이 대가야 무덤 속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에 처



대가야 유물 (시계방향으로) 영이쇠, 연화문 전동, 금동관, 책투구, 원통형 그릇받침, 관장식.

음 공개되는 유물들이 있다. 철의 왕국인 대가야를 대표하는 영이쇠(철정)는 일본과 중국에 수출하거나 시장에서 화폐로 사용한 것이다. 대가야 최고 지배층의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무덤 바닥에 깔린 채 출토됐다. 또한 마갑은 대가야가 말에도 갑옷을 입혔음을 알려주며 강력한 무적 기반을 갖추면서 고대 삼국과 각축을 벌였음을 보여준다.

이 유물들은 지산동 고분군 75호분에서 출토됐다. 그리고 대가야 고분에 부장된 다양한 토기들이 제작됐던 송림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연화문 전동

은 대가야가 연꽃으로 상징되는 불교를 수용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전시기간 중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한 공개 강연도 개최할 계획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대가야와 고령 지산동고분군에 대한 제주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고령군과 제주도가 보다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 대구 근현대 일상 이야기 한눈에 중구청, 시민 17명의 이야기 '생애사 열전' 발간

### 구·지술 포함해 45권 책 제작

대구 중구청은 지난 22일 대구의 근·현대를 살아온 시민 17명의 이야기를 담은 '생애사 열전'을 발간했다.

생애사 열전은 수십년간 약국, 초밥집, 이발소 등을 운영하며 겪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특히 생애사 열전 발간에 참여한 17명 중에는 한국수채화의 대가 이경희 화백과 클래식 음악가 우종익 선생, 서예가 류영희 선생, 수필가 김외남 선생 등 지역 원로 예술가들이 함께 해

일제강점기와 6·25한국전쟁, 산업화 시대 등 다양한 일상을 책에 담았다.

중구는 이번에 발간한 구술 생애사 6권과 지술 생애사 11권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44명의 인생을 엮어 45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대구 중구에서 평생을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통해 우리 근현대사의 소중한 경험이 널리 소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애사 열전은 대구 중구 도심문화재단 사무국(053-661-2331) 또는 재단 홈페이지(www.djdrfc.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종환기자



# 경북영광학교 무지개예술단 Little Psy's 팀 귀엽고 발랄한 오프닝 공연 선사 '인기'

경북영광학교(영천시 북안면 소재)는 지난 22일 대구 문화웨딩홀에서 열린 '국제장애인문화교류 대구광역시 협회 창립 2주년 기념식·회장단 취임식 및 시상식' 행사에 무지개예술단의 리틀싸이즈(Little Psy's)팀이 오프닝 공연에 특별초청되어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는 문화예술분야에 재능을 가진 장애인들이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공연에서 창의력을 활성화하고 예술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전문 강사진을 배출

함과 동시에 국내의 공연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감직한 울동을 선보인 리틀싸이즈(Little Psy's)는 전국 최초 장애인 종합예술단체인 무지개예술단에 2명의 초등학생 지적장애 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그동안 무지개예술제와 많은 초청공연에서 뛰어난 춤 실력과 끼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에서는 인기 가수 싸이(PSY)의 춤을 추며 초등학생 특유의 귀엽고 발랄한 모습에 행사 분위기를 한껏 살려 관객들에게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박삼진기자

# 울산박물관 "울리 영축사 가람배치 전모 확인"

### 3차 학술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만든 '강당지' 확인 신라사찰 중 상당한 규모 차지, 울산 불교문화 위상 가져

울리 영축사지(울산시 기념물 제24호)에서 통일신라시대 만들어진 강당지(講堂址)가 확인돼 영축사의 가람배치 전모가 3차 학술발굴조사 결과 밝혀졌다.

영축사(靈鷲寺)는 '삼국유사'에 신라 신문왕대(683년) 창건 내용이 기록된 사찰로 통일신라시대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울산박물관(관장 신광섭)은 총 5년을 계획으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학술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9월

15일부터 영축사지의 3차 학술발굴조사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1차 조사에서는 금당지를 중심으로 쌍탑이 위치한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가람배치임을 확인했고 2차 조사에서는 중문지(中門址), 회랑지(回廊址) 조사를 통해 영축사의 중심 사역 규모가 경주 감은사에 버금감을 확인했다.

이번 3차 조사에서는 강당지를 확인함으로써 영축사가 강당-금당-동·서탑-중문-회랑으로 이루어진 가람이었음이 분명해졌다.

강당지는 금당, 중문과 함께 동일한 남북중심축에 있으며 금당지 중심에서 북쪽으로 26.9m 떨어져 있다.

강당지 구조는 정면 7칸, 측면 3칸으로 잔존 규모는 동서 20.7m, 남북 8.9m이다. 강당지 내에서 통일신라시대 창건 당시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인화문토기편이 확인됐다.

강당지 동쪽에는 정면 1칸, 측면 1칸 구조의 부속 건물지 2동이 동서 방향으로 나란히 확인돼 주목된다.

이외에도 금당지의 흩어진 석부재를 정리해 정면 5칸, 측면 5칸 구조에 동서 15m, 남북 16.8m 규모임을 확인했다. 정방형의 평면 형태로 목탑지(木塔址)의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금당 중심에 심초석(心礎石) 등 관련 시

설이 확인되지 않아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광섭 울산박물관장은 "영축사의 강당지가 확인되면서 영축사의 가람배치가 분명해졌다. 경주 감은사와 가람배치나 규모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영축사가 신라의 지방사찰 중에도 상당한 규모의 사찰이었고 울산 불교문화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찰"이라고 말했다.

울산박물관은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영축사의 창건-증창-폐사 과정과 동·서탑의 규모 및 축조방법, 석탑부재의 정밀조사를 통해 영축사의 역사적 위상을 밝히고 통일신라시대 울산지역 불교문화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사진으로 보는 2014년 안동시 10대 이슈



안동시장 취임.



권정생 동화나라.



안동민속축제.



안동 암산얼음축제.



안동 천연가스 발전소.

▲ 안동암산얼음축제 우리나라 최고의 겨울 흥행 축제로 우뚝

지난해 1월 11일부터 5일간 열린 '2014안동 암산얼음축제'가 강원도 유명 겨울 축제들도 얼음판이 얇아 관광객 입장을 통제하거나 일정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관광객 35만 명이 다녀가 최고의 겨울축제 짝꿍을 티트했다.

▲ 아름다운 도심 생태하천으로 재탄생한 천리천

안동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며 하수유입 등으로 악취를 풍기던 천리천이 도심 내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재탄생했다. 복개하지 않은 동부교회에서 태화동 어가교까지 1.2km가 2년여의 공사를 거친 끝에 깔끔한 생태하천으로 조성됐다.

▲ 최고의 체험학습공간 하이그린파크청소년수련

지난 6월 24일 안동시 남후면 하아리 일원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최고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조성된 하이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이 개원했다. 수련원은 사업비 210억 원을 들여 부지 187,789㎡에 연건평 3,068㎡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해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30실과, 강당, 식당을 갖추고, 모험놀이시설, 서바이벌장, 다목적극장, 생태연못 등이 구비돼 있으며 시설 면적으로는 전국최대를 자랑하고 있다.

▲ 제29대(민선6기) 안동시장, 제7대 안동시의회 새로운 출발

지난 7월 1일, 7일 제29대(민선6기) 안동시장(시장 권영세)의 취임식과 제7대 안동시의회(의장 김한규)가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안동시와 안동시의회는 이번 출발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웅도 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신 도청시대를 활짝 열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이 한층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갈 계획이다.

▲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역사적 개막

지난 7월 3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1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개막식에 1,500명이 몰리는 등 안동대 국제교류관과 안동 예술의 전당, 안동 시민회관, 유교랜드에서 열린 20개의 기획 및 특별세션 프로그램에 1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찾았다.

포럼에 참여한 국내외 연사들의 발표와 토론 열기도 뜨거웠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앞으로 현대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 가도록 하는 중심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 안동암산얼음축제, 국내 최고 겨울 축제 '우뚝' 악취 풍기던 '천리천' 도심 생태하천으로 재 탄생 경북 新도청 소재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 거듭

▲ 417MW 규모 안동천연가스발전소 종합준공

지난 7월 21일 안동천연가스발전소 준공됐다. 안동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은 2007년 발전소 유지위원회를 발족해 10만 서명운동을 하는 등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사업이 시작돼 2012년 9월부터 안동 및 경북북부 지역에 LNG공급을 가능케 해 난방비 절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안동지역의 에너지 시대 개막을 알렸다. 안동천연가스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417메가와트(MW) 용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안동시 전체 전력사용량의 4배 규모이다.

▲ 소천권태호 음악관, 권정생 동화나라 개관식

지난 8월 28~29일까지 2일간 현대음악의 선구자 우리나라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성악가인 소천 권태호 선생과 강아지퐁, 몽실언니등 불멸의 작품을 남기신 아동문학의 선구자 권경생 선생을 기념하고 문화예술시설 확충의 하나로 소천권태호 음악관(성곡동), 권정생 동화나라(일직면)를 개관했다.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4 & 제43회 안동민속축제 대성황

동물의 왕 사자도 춤추게 하는 열정의 축제를

만들어 가고자 '두근두근 사자(Jumping Pumping Lion)'를 주제로 세계인의 신명과 흥, 열정을 안동으로 모았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4 & 제43회 안동민속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인구 17만의 중소도시 안동에서 지역 문화의 역량만으로 세계적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와 함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세계적 축제반열에 올랐다는 평을 얻고 있다. 올 축제에는 외국인 지난해(2013년 4만 2천여 명)와 비슷한 4만 2천여 명을 포함해 총 110만(2013년 98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성황을 이뤘다.

▲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유산 모두를 갖춘 세계 최초 도시 추진 활발

안동시는 2010년 하회마을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2016년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으며, 2018년 봉정사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게 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만 안동을 대표하는 하회마을, 도산서원·병산서원, 봉정사까지 등재하게 되는 쾌거를 올리게 된다.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하고 있는 '유교책판'이 2015년에 세계기록유산등재를 앞두고 있으며,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인류무형유산에 등재 되게 되면 유네스코 주도하에 있는 3대 카테고리(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유산)를 완벽하게 보유하게 되는 세계 최초의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미래 천년의 경상도 새 역사를 쓰다

경상도 개도 700주년을 맞이하는 신 도청 시대 개막은 12월 4일 경북도청 신도시본부 부서 직원 신청사 근무를 시작으로 미래 천년의 경상도 새 역사를 쓰게 됐다.

또한 주택, 의료, 교육, 환경 등 정주여건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년 2월 도청과 의회청사가 준공되면 3월경에 2단계로 이사 올 계획으로 있고, 내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전 작업을 마무리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재철기자



천리천.



하이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세계유네스코 등재.



정신문화수도.

# “무료진료 하고, 말벗 되어주니 고마워요”

## 스타대경봉사단, 영천야사복지관 어르신들 한방진료 봉사

스타대경봉사단(회장 김주한)이 지난 21일 영천시 영천야사복지관에서 어르신 4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스타대경봉사단 회원 10여명은 대구시 수성구에 소재한 청산한의원 김한균 원장의 도움으로 영천야사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40여명에게 한방진료를 실시했다.

매서운 겨울 추위로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날 방문한 김한균 원장과 스타대경봉사단을 반갑게 맞았으며 김 원장은 정

성껏 진료에 임했다.

김원장이 진료를 하는 동안 스타대경봉사단 회원들은 주위 환경정리와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며 어깨를 안마하는 등 쓸쓸한 연말을 맞는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움을 선물했다.

최혜수 노인회장은 “가족과 떨어져 사는 노인들이 많아 요즘 같은 연말이 되면 조금 외로움을 느끼는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찾아와 무료진료도 하고 말벗도 되어 주니 잠시 자신들과 함께 있는 듯이 즐거웠다”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박삼진 기자



### 예천남부초, 제7회 eduTop공모전 우수교 선정

예천남부초등학교(교장 김숙희)는 지난 22일 경북교육청이 주최하는 제7회 eduTop 공모전에서 ‘꿈 끼 찾아 비상하는 슈퍼맨의 행복 통통 여행기’라는 주제로 SUPER행복교육을 실천해 우수교로 선정됐다.

남부초등학교는 기본에 충실한 알찬 지혜교육(S), 문학·예술·과학이 함께 하는 창의성 교육(U), 도전하며 성장하

는 자긍심 교육(P),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성교육(E),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주인다움 교육(R)을 위해 일년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보고서 심사과 학부모, 학생 면담 및 실적물 심사를 거쳐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특히 학부모의 학교 참여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폭넓게 마련했다. 윤재철 기자



### 영주1동,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전개

영주1동(동장 배영환) 직원들이 지난 20일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지역 선비골순대(대표 배승규)에서 기부한 연탄 2,300장을 선비골순대 대표와 함께 영주1동 직원, 대영고 학생, 자원봉사자 등 약 40여명이 참여하여 고지대에 위치한 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배달했다. 또한, 강원연탄(대표 황영

호)에서도 4,000장을 기부해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영주1동 직원들은 지난 8월부터 섬김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매월 1회씩 지역 독거 어르신과 생활이 어려운 가구 등에 봉사활동을 지금까지 모두 4회 실시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받았다. 류효환 기자



### 대한지적공사 봉화지사·토펅, 다문화 성금·방한복 기증

대한지적공사 봉화지사와 주)토펅은 23일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과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성금과 물품을 봉화군에 전달했다.

지적공사봉화군 채홍해 지사장은 이번 성금(100만원)전달은 봉화군지사 직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된 기금으로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도 지속적인 성금모금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펅에서도 다문화가족 50세대 자녀에게 방한복 100벌을 기증하였다.

지난해에도 다문화가족에 써달라고 5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관내 다문화가족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류효환 기자



### LS아세아농기계 고령대리점, '사랑의 쌀' 100포 후원

LS아세아농기계 고령대리점(대표 설병욱)은 연말을 맞이해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달라며 사랑의쌀10kg 100포(350만원 상당)를 지난 22일 고령읍사무소를 방문해 기탁했다.

설병욱 대표는 평소 고령의 발전과 불우세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적극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어려운 세대를 위해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후원 할 것을 약속했다.

기탁된 물품은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부 할 것이며,그분의 은정의 뜻이 전달돼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겨울을 보내는데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김경희 기자



### 와룡면 바르게살기. 청결안동 실천에 앞장

안동시 와룡면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황영운) 회원들이 옹도경복소재지 면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선진도시의 함양을 위한 행복안동 3대 실천운동의 일환인 청결안동 실천에 앞장

서고 있다. 지난 22일 바르게살기위원회 30여 명은 국도 35호선 주변 주요관광지와 농경지 주변 등에 방치된 각종 생활 쓰레기 및 폐비닐 등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윤재철 기자



### 영천교육청, 2014학년도 교육활동 유공자 시상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호)은 23일 청소년수련관 2층 청소년극장에서 ‘2014학년도 영천교육활동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활동 유공자 시상식은

‘꿈, 보람, 만족의 희망+ 영천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영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은 5개 분야 121명의 교육활동 유공자에게 교육장 표창장이 수여됐다. 박삼진 기자



### 로하스비안스 경산지점, 어려운 이웃에 '백미' 기탁

경산시 대평동에 소재하는 유통업체 로하스비안스 경산지점(지점장 장진혁)에서는 22일 북부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백미 10kg, 50포(1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지난달 25일에도 백미 10kg, 10포(35만원 상당)를 기탁한 로하스비안스 경산지점은 어려운 이웃 누구나 필요할 때마다 '사랑의 쌀독'을 이용할 수

는 쌀독 운영 취지에 뜻을 함께 하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다시 찾아주었다.

이날 북부동 '사랑의 쌀독' 운영을 장진혁 지점장에게 소개한 15통장 장순희씨도 함께해 기쁨을 나눴다.

장순희 통장은 매일 백미 10kg 1포씩을 꾸준히 기탁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인호 기자



### 영천시, 종무식 대신 어려운 가정에 생필품 전달

영천시청 및 각 읍.면.동 공무원들이 연말연시 종무식을 대신해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선정을 실천하고 있어 영천시 전역에 훈훈한 감동의 물결을 전하고 있다. 박삼진 기자

23일 자양면 직원으로 구성된 문화재봉사회 회원들과 신녕면(면장 박도현) 직원과 이장상록회(회장 이철성), 정기택 시의원은 각각 기초수급자 가정과 신녕요양병원을 방문해 훈훈한 정을 나눴다. 박삼진 기자



### (주)미래산업, 성주군별고을장학회 1천만원 기탁

(주)미래산업 손명숙 대표는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손 대표는 “성주군 인재양성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김향곤 성주군별고을장학회 이사장은 “(주)미래산업 손명숙 대표에게 장학기금 기탁에 대해 고맙다”며, “다가오는 2015년에도 군민 및 출향인사들의 자발적 기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 한국농공 문경지사, '사랑의 내복-FUND' 전달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지사장 구자권)는 23일 오전 11시 문경시 산양면에 위치한 (사)문경시노인회 산양면 분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직원들의 성금으로 조성한 사랑의 내복-FUND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날 전달식에는 구자권 이사장, 채호식 산양면장, 이규순 대한노인회산양면분회장 외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복 80벌을 전달했다. 김세현 기자



경산시는 영대교 남천 둔치(영대교 하류)에 1800㎡규모의 야외 스케이트장을 조성해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스케이트장 및 얼음썰매장을 개장한다.

### 경산, 남천 야외스케이트·얼음썰매장 개장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영대교 남천 둔치(영대교 하류)에 1800㎡규모의 야외 스케이트장을 조성해 각종 편의시설(휴게실, 쉼터, 물품보관소 등)을 갖추고 스케이트장 및 얼음썰매장을 개장한다.  
관내 초등학교 방학을 기준으로 25일 개장하여 2015년 2월 20일까지 운영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본인의 스케이트 자켓을 무료임대 가능하며,

대여료는 일반·대학생은 5000원, 유아·초·중고생은 3000원을 받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초보자를 위한 스케이트 강습회도 운영하고 있으며, 추운 겨울에 시민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야외스케이트장을 이용하여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겨울을 보내고,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호기자

### 안동시, 도시재생대학 전국 '최우수'

안동시는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성남시 소재)에서 개최된 '2014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우수 사례 발표회'에 참여해 지역특화 부문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도시재생대학 발표회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도시재생대학 수강주민, 현장 활동가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울산, 춘천, 부산 등 2014년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정 공모에 1차 통과해 국비지원을 받은 11개 지자체에 한해 발표를 진행했다.  
안동시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주민모임과 마을계시관 설치, 주민-행정 토론회 개최 등 부단한 노력을 해왔

으며, 특히 지난 9월~10월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 주민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어 주민주도형 사업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번 개최된 발표회는 올해 시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중 '온정 한 아름, 옥정마을' 팀(발표 전미경)이 '안동 놀러와봤니꺼'라는 주제로 시 원도심의 위기상황,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 기존 한옥을 활용한 마을 꾸미기, 한옥 공가를 활용한 게스트 하우스, 골목길 정비 및 주민복합공간(노인정) 만들기 등 원도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주민 참여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윤재철기자

#### 동정

▲최양식 경주시장은 24일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시정질문에 답변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4일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16회 포항시의회 정례회 폐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24일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24일 영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62회 영천시의회폐회식'에 참석한다.

#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우수 특구' 선정

## 시설원에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높이 평가

성주군 참외산업특구는 지난 22일 경북도 2014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적 우수특구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특구 선정은 경북도내 26개 특구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는데, 지역정책사업으로 추진한 350억원 규모의 시설원에 품질개선사업, 시설원에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저급참외수매 액비자원화, 성주참외맞춤형액비 개발, 성주참외홍보관 건립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2006년 2월 유통혁신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 특구지정 승인을 받은 성주참외산업특구는 2007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과 참외박스 규격화를 시작으로 참외박스 10kg경량화와 디자인 단일화사업 등 유통, 가공, 생산기반 조성, 성주참외 홍보에 민관일체 노력으로 2007년부터 전국 최우수상 2회, 경북 최우수상 2회, 경북 우수상 3회 등 그동안 7번째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참외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시설원에 품질개선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성주참외 맞춤형액비



성주군 참외산업특구는 지난 22일 경북도 2014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적 우수특구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개발보급, 6차 산업을 통한 참외가공품 개발, 해외시장 개척, 통합마케팅 등을 통해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의 명성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참외를 성주군 제1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전 참외농가가 역대 부농이 되는 그날까지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희기자

# 경주시 서면청년회, 아름다운 선행 '훈훈'

## 소외계층 돕기 생필품 나누기 행사

경주시 서면청년회(회장 정정근)는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연말 연시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보내기 위해 지난 21일 민민회관에서 녹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돕기 사랑의 생필품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경주시 서면청년회는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연말 연시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보내기 위해 지난 21일 민민회관에서 녹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돕기 사랑의 생필품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해에 이어 여섯 번째 행사로 박수현 서면장과 황하준 서면체육회 회장, 김병철 신경주농협 조합장이 참석해 매서운 추위속에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청년회원들의 수고를 격려했다.  
이날 청년회원들은 추위와 힘겹게 싸워야하는 홀몸노인가정과 소년·소녀 가장 40가구에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담은 꾸러미를 직접 전달하고 특별

이 불편하고 어려운 곳이 없는지 세심 이 살펴 보기도 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서라벌 공원과

지역 우량 기업인(주)금강 및 건천읍에 소재한 건강나라에서도 함께 참여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사각지대의 빛이

되어 지역 청년들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박삼진기자

# 포항시, 정보통신·통계분야 성과 우수

포항시 정보통신과는 각종 시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서 개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기관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운영분야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 통계분야 국무총리 표창 수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 정보통신분야 중점 시책으로 공공 데이터 개방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시민 정보화 능력 배양 및 정보 접근성 향상,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통계 자료 작성 등을 추진했다.  
시는 지난 10월 시민과 소통하고 정

보를 공유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병원, 약국, 공시지가 등 Open Api 27종, 지도정보 35종, 정보파일 45종 등 새로운 형태의 공공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공공 데이터 활용도를 증대 시키고 있다.  
또, 정부3.0의 핵심 과제인 정보개방과 공유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 공개 및 협업 시스템인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전자문서 원본공개와 정책실명제 실현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해 정보소외계층(연인원 38,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활용방법 등 시민 정보화 교육을 무상으로 시행해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손상욱기자

**산불이 사라지면 행복이 살아납니다**

작은 불씨가 우리 모두의 행복을 태워버립니다.  
 생강, 캐이타는 두고 가고 - 개방된 등산로의 이용하고 - 취사 대신 도시락을 즐기고 -  
 꺼진 불씨도 꼼꼼하게 다시 보고 남의 불씨도 꼭 경계하세요  
 산불이 사라지면 산림이 살아납니다. 산불이 사라지면 행복이 살아납니다.  
 산불예방! 녹색미래를 지키는 행복한 습관입니다.

산불신고 : 054-859-1115

칼럼

### 잘못된 우리의 술문화 바뀌야

우리나라 만큼 술에 대해 관대한 나라도 드물다. 술자리에서 자기 잔을 상대방에게 주고 잔을 채워 줌으로써 인정을 표시하는 관습을 보면 관대한 음주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쁘도 한잔, 슬퍼도 한잔에, 모이면 마시고, 취하면 싸우고, 헤어진 후 다음날 다시 만나 웃고 함께 일하는 것만 봐도 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를 잘 알 수 있다.

마치 심신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만병통치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마신 술 소비량을 100% 순 알코올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연간 10리터 정도가 되니 1인당 1주일에도 소주 2병 꼴을 마시는 셈이다.

알코올은 중추신경계의 활동 및 뇌의 일부 기능을 저하시켜 자제감을 잃게 만든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친근감, 말 많아짐, 공격성, 난폭성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물론 내성도 생긴다.



장영철 편집국장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마시게 되면 내성과 의존성이 생기게 된다. 알콜에 내성이 강해진다보면 결국 알코올에 의존하게 된다.

바로 흔히들 얘기하는 알코올 중독이다.

이처럼 술이 지나치게 되면 자신의 신체와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와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알코올중독자의 배우자들은 불안, 우울, 강박, 적대감을 보이며 부부간의 친밀도도 낮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알코올에 의존하다보니 정신질환속

에 황폐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술로 인한 빛나던 문화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술은 본래 적당히 하면 좋은 것이지만 도를 지나치면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기 마련이다.

국내 최초의 술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삼한시대 때 행사에서 사용되었으며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에 제조되었던 술의 명칭이 기록에 남아 있으니 가히 오래전부터 술을 마셔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식생활 문화의 변천과 함께 다듬어지고 정착되면서 민족 나름의 맛과 맛으로 반영돼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류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술은 빠질 수 없는 삶의 동반자다.

도인이 술을 마시면 천하가 평화롭고 군자는 술을 아름답게 마신다는 옛말이 있다.

이제라도 술이 생활의 윤희유가 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어가자.

社說

### 공직자의 잦대인 도덕성과 청렴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경주시가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

청렴도는 경주시의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알 수 있어 지역사회가 행정불신으로 인한 실망스런 입장을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청백리(淸白吏)는 조선시대 대신·대간 등에서 추천받아 공식으로 인정한 청렴한 관직자를 말한다. 청백리들이 지켰던 공직윤리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이며 청렴·근검·도덕·경효·인의 등을 매우 중요시했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사명감, 충성심, 백성을 위한 봉사정신 등을 개인적인 생활철학으로 정립했다. 나아가 공직자의 윤리관으로 확립했다.

청백리 정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청렴정신은 탐욕의 억제에 있었다. 청백리 정신은 선비사상과 함께 이상적인 관료상이었다.

고위직 인사들이 뽑힐 때마다 각종 부정부패, 비리에 출몰이 연루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은 아예 기본이다.

뇌물수수 청탁, 탈세에다 병역 기피까지 줄줄이 사탕이다. 학력 위조에 눈은 표절에 그리고 말 바꾸기 등 실로 다양하고 엄청난.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국민들이 투기를 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면 바로 응징을 당한다. 벌금을 비롯한 호된 제재 조치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고 만다.

그런데 어떻게 소위 높은 분들은 그런 일을 밥 먹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는지 실로 놀랍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말은 거짓이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는 진리가 무색하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맞는 말이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말이다. 문제는 고위직 인사들의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청렴 서약을 하고 도장까지 찍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속으로는 항상 굶아터지고 있는 데 말이다.

물론 부패 공무원보다는 묵묵히 일하는 청렴한 공무원이 훨씬 많다고 믿는다.

그러나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 몸 바치려는 고위직 청백리는 흔치 않다.

문제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물러나야 한다. 도덕성과 청렴성은 공직자의 잦대이기 때문이다.

기고

### 북한여성, 헤어스타일이 변하다

북한 여성들의 옷의 변화와 함께 헤어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다. 북한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4월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이나 설 추석 명절에 주로 머리스타일을 바꾸었다. 자유로운보다는 획일적이고, 일관된 스타일로, 20대나 여대생들은 말총머리나 단발머리, 30대 이후의 여성들은 짧은 파마머리를 주로 했다. 최근 리얼주의 다양한 헤어스타일 등장 이후 북한여성들의 머리 스타일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머리카락이 어깨에 조금만 닿아도 규찰대의 단속 대상이 되었지만, 부드럽게 파마한 긴 머리 형태나 짧은 숏 컷 형태가 여성들 속에서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남성들은 '패기머리'라고 불리는 짧은 머리형태가 유행이 되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상고머리로 '김수현' 머리 형태라고 보면 된다. 북한의 대학생은 물론 노인과 중년 남성들에게도 인기라고 한다. '조선신보'에 의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영도자의 풍모를 닮기 위해 '패기머리'가 파급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는 남한의 헤어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다. 긴 머리 스타일로 '투블럭 바가지머리'라고 하는데, 일반머리



정순미 통일시민대학연합 강사

를 자르는 비용의 6배나 한다. 일반머리는 북한 돈으로 1,000원을 하지만 긴 머리는 6,000원을 한다고 한다. 6,000원은 쌀1kg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4인 가족의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이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접하면서 패션은 물론 헤어스타일까지 따라할 정도로 한류

가 생활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증거다.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산 물품을 쓰거나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따라하면서 그들만의 그룹이 형성되었고 '누가 한국산 제품을 쓰고 유행을 따라 하는지가 잘 사는 지 못 사는 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한다.

최근 북한은 새로운 미용 기술의 적극적인 보급으로 새로운 머리 형태가 나이와 기호 등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고, '조선미용기술 협회'를 설립해서 이발·미용 강습 주최 등, 이·미용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독려 하고, 전국 규모의 이발·미용 경연을 열기도 했다.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대한 관심은 북한 내에 개인주의적 성향이 싹트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경상투데이** hppt/경상북도신문.kr

발행·편집인 이 승 협	편집국장 장 영 철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판매·광고국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경영·관리국 (054)748-3000
사회부 <구내>1006	F A X (054)748-3663
사회2부 <구내>1005	구독·광고·제보 ☎054-748-0070
문체부 <구내>1007	mail : gst3000@naver.com
정경부 <구내>1008	

·경북 경주시 원화로 244(황오동)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연... 새와 꽃,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 경주동궁원

Gyeongju East Palace Garden

경주시 GYEONGJU

# 영덕 블루로드



## 목은사색의 길 (C코스) 거리 및 시간 : 17.5km / 6시간

<b>고래불해수욕장</b>  <p>대진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고래불까지 해변은 바다 병풍처럼 둘러쳐진 송림을 끼고 펼쳐져 백사장이 아름다운 '영사갯길'이라고 부른다. 동해 특유의 맑고 깨끗한 바닷물과 고운 해변을 보여주는 곳으로 바닷길 따라 펼쳐진 경치가 좋은 곳이다.</p>	<b>대진해수욕장 (해양레포츠센터)</b>  <p>대진해수욕장은 이만양의 '젊은날의 초향' 배경지로 백사장을 가로지르는 송림이 바다와 만나고 수심이 얕아 가족휴양지로 좋은 곳이다. 해양레포츠센터가 들어서 있는 데간에서는 스노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 레저를 배울 수 있다.</p>	<b>고시리전통마을</b>  <p>고려 말 삼촌 중에 한 분이 목은초에 아낙후출생의 아들 출생지로 고려 말엽 신생에서 중국에서 사신으로 다녀와서 초지촌(초지)의 지명이 중국의 고시리 출신이다. 하여 고시리 해안다고 전해진다. 2009년 된 정동기유물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참신한 젊은이들 초행마을의 정취를 느끼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된다.</p>
---	--	---

## 푸른대개의 길 (B코스) 거리 및 시간 : 15km / 5시간

<b>축산항 (신 정동진) _ 죽도산</b>  <p>강구항과 더불어 영덕을 대표하는 축산항은 새벽부터 밝아져 분주히 출몰하는 어선들로 항상 활기가 넘치고 있어 부지런한 어촌의 삶을 느껴볼 수 있다. 강릉의 정동진이 서울의 정동육간 것처럼 축산항은 세종시의 행정동진으로 불린다.</p>	<b>대개원조마을(자유어촌체험마을)</b>  <p>죽도산이 보이는 이곳 개와 다리기 대나무를 많이 옛부터 대개과 불광고 영덕에게 청조마을이 되었다. 고려 말 영해 부사 장항일이 대개신자인 이교를 순시하기 위해 마차를 타고 넘어 왔는데에 자유어로 부부기도 한다. 아름다운 이교마을로 정경의 아름다움 풍광과 함께 진정한 대개 원조지로 보고 하고, 즐기기만 하기 용부한 어촌체험마을이다.</p>
--	---

## 빛과 바람의 길 (A코스) 거리 및 시간 : 17.5km / 6시간

<b>해맞이공원</b>  <p>우리나라 최고의 해안 드라이브 코스상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으로 아성화기 코트라산 산책로와 선왕대 일대의 갈대숲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음악과 조각이 있는 아름다운 휴식공간이다.</p>	<b>풍력발전단지</b>  <p>국내최대의 상업용 민간 풍력발전단지로서 전체 24기 가동중이다. 인근 해맞이공원과 연계한 이국적인 풍차와 동해안 달맞이 이국시대를 기쁘게 체험할 수 있도록도 유명하다. 영덕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을 둘러 그려네다지에 대해 배워보는 것도 좋다.</p>	<b>강구항</b>  <p>영해대개의 집산지로 이곳 일대에는 배어곳이 많은 대개 요람이 있어 다양한 대개 요람을 맛볼 수 있다.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 의 촬영지이기도 한 강구항은 주변 해변의 풍광과 풍물이 아름다워 동해안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p>
---	--	---

## 쪽빛파도의 길 (D코스) 거리 및 시간 : 14.1km / 4.5시간

<b>삼사해상공원</b>  <p>경북내륙 천하제일해문석 꼭대 분수대, 공원정 등을 갖추고 있으며, 동해안변 풍경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자연전망대이다. 해맞이와 최후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p>	<b>장사해수욕장, 장사상륙작전 전적지</b>  <p>한국에서 일출이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장사해수욕장은 풍경하기 좋은 굽은 파도에 900m에 길 백사장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인근의 위령탑은 장사상륙작전 전적지로 명사의 발자취가 온전한 곳이다. 뛰어난 수질을 자랑하는 부경은천이 5분 거리에 있다.</p>
---	---